

대선유세 “문화수도 아낌없는 지원” 국무회의 “정치적 빅딜 산물”

朴대통령 亞문화전당 발언록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관련한 박근혜 대통령의 지난 25일 국무회의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박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 시절에 광주를 방문해 내걸었던 공약이 다시 회자하고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

박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시절이던 지난 2012년 11월 12일 광주역 유세에서 “우리 광주와 호남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정책을 만들고 그 약속을 반드시 실천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당시 박 후보는 이어 총장로를 방문, “총장로를 비롯한 구도심을 활성화 시키고 광주를 명실상부한 아시아의 문화수도로 키우는 일을 저지 새누리당이 해낼 것”이라며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차질 없이 완공되도록 지원하고, 문화산업 관련 기업과 투자유치를 위해 지정된 문화산업 투자진흥 지구가 활성화돼 청년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 후보로서 박 대통령은 또 같은

차질없는 추진 약속하더니

경제활성화 막는 법안 폄하

문화전당 사업 축소 우려 커져

해 12월 5일 남광주시장 유세에서 “문화예술 융·복합의 인프라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며 “광주의 미래와 일자리가 걸린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과 친환경 그린카 클러스터 기반시설을 차질 없이 추진해서 광주 경제 활성화를 확실하게 책임지겠다”고 약속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이번에 호남의 큰 어른이신 한화갑 전 대표님도 저와 함께 해주셨다. 큰 결단을 내려주신 한화갑 전 대표님께서도 큰 관심을 갖고 챙기고 계시는 ‘광주 아시아문화전당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서, 광주를 명실상부한 아시아의 문화수도로 키우겠다”고 밝혔다.

때문에 광주시민은 새누리당이 집권을 해도 아시아문화전당을 비롯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사업만은 아무런 결렬 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하지만, 박근

해정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 사업의 규모를 광주지역의 사업으로 축소하려는 시도를 해 광주시민의 반발을 샀다.

그런데 박 대통령의 지난 25일 국무회의 발언으로 이 같은 박근혜정부의 입장 배경에 박 대통령이 있다는 사실을 짐작케 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박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지난 1월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고 후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법안 처리가 시급한 상황에서 여야는 아동학대예방과 아무 관련도 없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특별법을 영유아 보육법과 연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며 “그런데 정작 시급한 영유아보육법은 2월 국회서 처리되지 못하고 연계법안만 처리를 했다”고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또 “국회가 꼭 필요한 법안을 당리당락으로 묶어 놓고 있으면서 본인들이 추구하는 당략적인 것은 빅딜을 하고 통과시키는 난센스러운 일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고 일갈한 뒤 “이렇게 통과시킨 법안은 국민의 민생과 삶에 직결되는 사안도 아니고 국민 세금만 가중시키는 것들이다”며 “매년 800억 이상의 운영비를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광주지역 의원들과 지방의원 및 당원들이 28일 오후 광주 서구 화정동 새정치민주연합 광주시당 회의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박 대통령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공약을 즉각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지원하는 아시아문화전당같이 자신들이 급하게 생각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빅딜해서 통과시키면서 민생과 일자리 창출법안은 몇 회기에 걸쳐서도 통과시켜주지 않는 것은 경제살리기에 역행하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박주선 의원은 28일 “박 대통령은 2012년 대통령 후보 때 광주에 와서 아시아문화중심도시사업 추진을 약속했고, 당선된 이후 대통령 국정 과제에도 아시아

문화전당을 세계문화의 집으로 만들겠다는 내용을 포함했다”면서 “표를 얻기 위한 약속, 허위 과제 설정, 국민 기만이었느냐”고 비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K-POP·한국문화에 이끌려 U대회까지 왔어요”



통역봉사 카자흐스탄 ‘미녀 삼총사’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U대회) 개막을 나흘 앞두고 70개국 1000여명의 선수단이 잇따라 입국하면서 대회 열기가 고조되고 있다.

입국 선수단이 늘어나면서 대회 기간 자국 선수 및 비슷한 언어권 선수들을 도우려는 외국인 자원봉사자들의 활동도 활발해지고 있다.

K-POP 팬클럽으로 시작한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광주U대회 자원봉사자라는 인연으로 이어진 카자흐스탄 출신 미녀 삼총사의 선수촌 내 인기가 벌써 뜨겁다.

무하멧칸 샬타넨(Mukhametkan Saltanov·22)과 이자 아이다(Izat Aida·21)·팍 야나(Pak Yana·27)씨가 그 주인공.

국제기술임원(ITO) 빌리지 등에서 러시아어, 카자흐스탄어 통역 봉사를 맡은 세 사람은 K-POP 팬클럽에서 만나 함께 한국에 대한 사랑을 키워왔다.

무하멧칸씨는 “9년 전 한국음악을 처음 들은 이후 한국문화에 푹 빠졌다”면서 “친구인 이자과 커버댄스(노래와 춤, 가수들의 스타일 등

팬클럽 활동 한국사랑 키워

“전세계 젊음이들과 교류 기대”

을 그대로 따라 하는 것)를 즐겨 했다. K-POP 팬클럽 부회장으로 활동하던 팍 야나씨와 함께 팬클럽 활동을 하며 친해져 U대회 자원봉사에 참여하게 됐다”고 소개했다.

무하멧칸 샬타넨씨와 이자 아이다씨는 카자흐스탄국어대학에서 한국어를 전공하고 있으며, 올해 3월 원광대 교환학생으로 한국 생활을 하고 있다. 이자씨는 “한국 사람들의 근면성실한 점이 인상 깊어 한국 문화에 더욱 관심을 갖게 됐다”고 밝혔다.

팍 야나씨는 조금 더 특별한 계기로 광주U대회 자원봉사에 뛰어들게 됐다. “지난해 카자흐스탄에서 열린 국제대학스포츠연맹-카자흐스탄대학스포츠연맹 미팅에서 끌로드 루이 갈리앙 FISU 회장님을 도와드린 일이 있었어요. 그때 회장님을 알게 됐는데, 광주U대회에 초대한다는 메시지를 보내셔서 자원봉사 활동을 마음먹게 됐습니다.”

팍 야나씨는 카자흐스탄에서 열린 각종 스포츠대회에서 아타세로 활동한 풍부한 경험을 갖고 있다. 그는 광주U대회 자원봉사를 위해 특별 휴가를 내고 최근 카자흐스탄에서 광주에 왔다. 빅뱅, FT아일랜드, 엑소 등 좋아하는 아이돌



광주U대회 기간 카자흐스탄과 러시아 선수들에게 통역 서비스를 제공할 팍 야나, 이자 아이다, 무하멧칸 샬타넨씨(사진 왼쪽부터)가 27일 U대회 조직위 앞에서 기념촬영을 했다.

그들은 다르지만 광주U대회를 통해 얻고 싶은 점은 같다. 한글을 배우고 있는 입장에서 광주U대회 자원봉사자 활동을 통해 한국어 실력을 더욱 쌓고, 다른 자원봉사자들과 교류하고 싶다는 것.

세 미녀는 “광주U대회는 또래 친구들인 대학생 선수들의 올림픽”이라면서 “카자흐스탄 선수들이 광주U대회에서 꼭 좋은 성적을 내면 좋겠다. 통역 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U대회 이모저모

환영인사·공연...내달 3일까지 선수촌 입촌식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조직위원회는 지난 26일 선수촌 개촌에 이어 대회에 참가하는 각국 선수단을 환영하는 입촌식을 선수촌 국가광장에서 29일부터 7월 3일까지 진행한다.

입촌식은 29일 오후 4시 카자흐스탄, 파라과이 선수단을 시작으로 개막식인 7월 3일 오전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임덕호 광주U대회 선수촌장 주관으로 진행되는 입촌식은 선수단 입장을 시작으로 비보이 등 환영공연, 선수촌장의 환영인사와 함께 공식 입촌 선언이 이뤄진 후 기념포 교환, 입촌국가의 국기 게양 및 FISU찬가연주 및 기념촬영으로 국가별 선수단 환영행사가 마무리된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13세·87세...최연소·최고령 자원봉사자

광주U대회 최연소·최고령 자원봉사자는 누굴까? 영어 통역을 맡은 13세의 초등학교 6학년 석다연양과 일본어 통역을 맡은 87세의 김중식 양이다. 무려 74살 차이다.

김용은 식민지 시대에 일본어를 익혔다. U대회 기간에 선수촌에 배치돼 일본 선수단을 안내하게 된다. 김용은 “유니버시아드는 올림픽에 버금가는 국제행사이자 광주의 자랑거리로 남을 대회”라며 “외국 손님들이 좋은 인상을 갖고 돌아갈 수 있도록 친절한 자원봉사자로 남겠다”고 말했다.

석양은 광주시가 주최하는 주니어통역사 선발에서 1차에 합격한 실력자다. 초등학교 저학년 시절 2년간 캐나다에서 살면서 쌓은 영어 솜씨를 발휘할 기회가 생겼다고 말했다.

진월국제테니스장 의무실 영어 통역을 맡은 석양은 “잘해낼 수 있을까”하는 걱정도 있지만 광주에서 세계인을 만나는 행사가 열려 매우 설렌다. 언니 오빠들에게 활기를 주는 막내가 되도록 열심히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백희준기자 bhj@kwangju.co.kr

밝은광주안과

노안(老眼)도 치료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광고를 보면서 돋보기를 쓰고 보시나요? 아니면, 쓰던 안경을 벗고 보시나요?

노안시력교정수술로 편한 생활이 가능합니다.

1566-9988

수술 방법: 라식수술을 하듯 각막을 깎아 초점을 맞춰 노안치료, 인공 수정체 삽입으로 백내장과 함께 노안치료, 각막에 초정밀 미세 인레이를 삽입하여 노안치료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맞은편 눈모양빌딩을 찾으세요

문의처: 노안리식/Karma nky를 이용한 시술/다초점 인공 수정체/레스토렌즈/레이즈를 니버비전 인레이

※목적용:수술하기 아간 및빙빙, 노안리식 수술시 건조증등이 생길수 있습니다.

의료광고심의의뢰 제 140611-중-59153호

시엘병원 보건복지부 지정 배아생성의료기관

의료광고심의의뢰 제150204-중-68156호

아이소망

시엘병원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체외수정시술 | 산부인과 복강경수술 | 습관성 유산 · 종합건강검진센터

www.clwhivf.com | www.시엘병원.com ☎(062)368-1700